“국가 위한 헌신엔 합당한 예우”

임실군, 7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참전용사 기준 15만원 지급… 도내 지자체 중 최고

임실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임실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군은 오는 7월부터 호국보훈 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참전용사 기준 15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훈 수당이 처음 신설된 2011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참전용사 기준) 5배 인상한 수치이자,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은 이념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보훈 기조에 크게 공감하며,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특별하고 뜻깊은 선물로 수당 인상 방침을 세웠다.

군에 따르면 보훈 수당은 2011년 3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5만원, 2017년 8만원, 2021년 10만원, 2022년 11만원, 2024년 1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임실군 보훈 대상자는 총 649명이며, 이는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는 15만원 그 외 유공자는 13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군은 6.25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해 3.1운동 기념행사, 6.25 기념 안보결의대회, 나라사랑콘서트, 소충제례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이라도 보훈 수당을 인상해 왔다”며 “고령이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군은 35사단과 호국원이 있고 독립 유공자도 호남에서 가장 많은 154명을 배출한 호국보훈의 고장에 걸맞게 보훈 문화 확산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하나 되는 마을, 다시 찾고 싶은 제천

남원 주생면 제천마을, 생생마을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제12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주생면 제천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오는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구현을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대회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두 번째를 맞고 있다.

주생면 제천마을은 ‘하나 되는 마을, 다시 찾고 싶은 제천’을 목표로 마을 경관 개선과 동아리 활동, 마을 공동 급식, 재능 기부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딸기, 복숭아) 가공 제품 개발·판매하는 등 주민 소득 창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정주 제천마을 이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모여 준비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 마을이 밀접하게 소통하여 준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발굴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약 한달간 순창시니어클럽 주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3,35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교육 첫날인 25일 복흥면 체육관에서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영일 군수가 특별강사로 초청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 군수는 이번 교육에서 특별강사로 직접 나서 참여자들과 만나며, 다가오는 폭염철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다.

최 군수는 “여러분의 사회참여는 순창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라는 인사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폭염철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비 오는 도로 위, 소방관의 따뜻한 배려

순창소방서 안만선 소방교, 차량 고장으로 멈춘 시민 안전하게 보호

비가 쏟아지던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경, 임실군 하운암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선 운전자를 구조한 순창소방서 안만선 소방관의 따뜻한 행동이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차량 본닛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며 차량이 정지한 가운데, 운전자는 당황한 채 차량 안에 머물며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사고 지점은 터널을 지난 직후의 구간으로, 차량들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다.

이때 순창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응구조팀 소속 안만선 소방교는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차량 뒤편에 소방차를 정차한 뒤 경광등을 켜고 2차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

안 소방교는 본닛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머물던 운전자에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 밖으로 나와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며 신속히 대피를 유도했다. 이후 약 30분간 현장을 보호하면서 운전자를 안심시키며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해당 운전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소통참여-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 같았다”며 감동적인 사연을 올렸고, 순창소방서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만선 소방교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아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늘 국민의 곁에서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안보결의대회 개최

6·25 참전유공자 임실군지회(회장 정재수)가 지난 25일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심 민 군수와 박정규 도의원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안보결의대회에서는 안보 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물방개 워터파크’ 7월 1일 개장

남원시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해 큰 인기를 끌었던 물방개 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해 작년 기준 3,468명이 방문하여 물놀이 명소로 자리잡았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하루 5회(10:00, 11:00, 14:00, 15:00, 16:00) 운영해 50분간 물놀이를 즐기고 10분간 휴식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설은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조형분수 등으로, 더욱 즐겁고 시원한 놀이시설을 제공할 예정으로, 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개장에 앞서 방역과 청소를 실시해 안전한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문협, 군민과 함께하는 문학창작 교실 개강

(사)한국문인협회 순창지부(지부장 장교철)는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제로 순창군민과 함께하는 문학창작 교실을 개설한다.

첫 강의는 오는 30일 저녁 7시, 순창교육지원청 솔샘도서관 4층 교육실에서 열리며, 이광재 소설가가 ‘동학농민혁명과 근대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소설가는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2015년에는 장편소설 ‘나라 없는 나라’로 제5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번째 강의는 7월 7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서옥자 전북재능시낭송협회장이 시 낭송의 기초와 낭송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외에도 송준호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조경훈 작가 등 호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교철 지부장은 “이번 강좌는 지역 주민과 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4-H본부, 동부권 4-H 한마음대회 참석

남원시4-H본부(회장 강성원)는 26일, 제14회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에 1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마음대회는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에서 700명이 참여, 동부권4-H본부 지·덕·노·체 4-H 이념실천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4-H 이념 정신으로, 자연을 보고하고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4-H회원과 농업인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